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부모와의 애착경험, 애착전이 수준, 외로움의 영향

전 효 정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신입생들의 적응과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내 소재 대학 1 개교에서 200명의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애착도구, 애착 전이,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생활만족도 등 관련 도구들과 인구통계학적 질문이 포함되었다. 애착유형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생태학적 모형이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유의한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형 애착유형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불안정애착유형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다. 대학신입생들은 부모에게서 또래로 애착전이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대학의 신입생들은 학교생활 초기 적응기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외로움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애착유형에 따른 외로움 지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형 애착집단이 불안정 애착집단보다 유의하게 외로움이 낮게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생태학적 연구모형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즉, 개인적 특성(애착유형, 자아존중감)과 환경적 특성(가정환경, 학교환경)은 외로움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